

# 6·25전쟁 시 중국의 전쟁종결전략 결정요인 분석

崔北鎮\*

1. 서론
2. 전쟁종결전략의 이론적 틀
3. 중국의 6·25전쟁 종결전략 결정요인
4. 결론

## 1. 서론

중국은 6·25전쟁을 전후하여 전쟁준비에서부터 전쟁수행 및 종결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공산군측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중국은 북한의 남침준비단계에서부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6·25전쟁 중에는 북한에 대규모 군대를 파병하여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 위치에 있으면서 주동적(主動的) 역할을 서슴지 않았다. 즉, 중국은 6·25전쟁 이전에는 북한 및 소련과의 전쟁모의에 적극 가담하고 중국군 내의 조선족부대(한인병사·韓人兵士)를 북한군에 편입시켰고, 전쟁발발 이후에는 평양에 군사관찰단을 파견하여 전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훈수’를 두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한 후 소만(蘇滿)국경으로 진격할 때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지원한다(항미원조보가위국·抗美援朝保家衛國).”는 미명하에 대규모의 군대를 파병하여 종전 때까지 중조연합사(中朝聯合司) 체제를 구축하며 실질적으로 전쟁수행의 주체적(主體的) 역할을 담당했다.

그렇지만 6·25전쟁 때 중국의 전쟁목표와 전략은 군사적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 이는 중국이 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이 전쟁에 개입한 이후 자력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첫 번째는 1951년 1월 1일 중공군이 38도선 이남으로 돌파하지 않고 멈추었을 경우이고, 두 번째는 1951년 11월 27일 정전회담에서 군사분계선 문제가 원칙적으로 타결되었을 때 종전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을 경우이다. 중국이 이 두 번의 기회를 받아들였다면 전쟁은 훨씬 빨리 종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는 중국의 전쟁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종결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이 6·25전쟁 개입부터 종전까지 정치적 목적과 종결전략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친 지배적인 결정요인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는 중국의 6·25전쟁 개입 및 전쟁수행 과정에서 중국의 전쟁정책과 전략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6·25전쟁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전쟁의 배경과 원인, 과정과 휴전 등에 치중되어 있었다.<sup>1)</sup> 물론 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사실이었다고 해도 ‘종결전략’을 비롯하여 국가홍망과 관련된 보다

1)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 과정, 휴전, 영향』, 제4수정 증보판, 박영사, 2010;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집문당, 2007; 유영익·이채진 편, 『한국과 6·25전쟁』, 연세대학교출판부, 2003; 와다 하루키 저, 서동만 역, 『한국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9;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두레, 1998;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집문당, 1998;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I, 나남출판, 1996;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 태암, 1990; 브루스 커밍스 저·김주환 역, 『한국전쟁의 기원』 상·하, 청사, 1986; 브루스 커밍스·존 할러데이 저·차성수·양동주 역,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태암, 1989.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간과하여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6·25전쟁에서 전쟁을 수행한 국가가 전쟁 중에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매우 중요하다. 즉,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못지않게 어떤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전쟁을 종결할 것인가 하는 '전쟁의 종결전략' 또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불모지 상태나 다름없다.<sup>2)</sup> 특히 이 논문의 핵심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국의 6·25전쟁 종결전략'에 관한 연구는 더욱 제한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자료 분석을 통한 문헌 연구 방법을 적용했다. 문헌연구 방법은 연구대상을 문헌중심으로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헌을 분석하여 나타난 현상과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들 자료로는 중국기관에서 발행한 책자<sup>3)</sup>, 러시아에서 공개한 문서 및 자료<sup>4)</sup> 등 공산권 자료에 비중을 두었다. 또한 국내외 학자의 연구보고서 및 일반자료, 언론보도 자료, 학위논문, 회고록 등도 연구를 위해 적극 활용했다.<sup>5)</sup> 이를 통해 이 논문에서는 중국이 어떠한 국내적·국제적

2) 이에 대한 연구로는 최복진, 「사례를 통해본 전쟁종결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3) 中國軍事科學院, 『抗美援朝戰爭史』 1·2·3권, 20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中國軍의 韓國戰爭史』 1·2·3권, 2002·2005·2005]; 中國軍事科學院, 『抗美援朝戰爭史』, 1988 [韓國戰略問題研究所 역,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世經社, 1991];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韓國戰爭과 中國』 I·II, 정부기록보존소, 2002; 中共中央文獻研究室, 『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中央文獻出版社, 1987;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編, 『周恩來軍事文選』 第1-4卷, 人民出版社, 1997; 彭德懷自述編輯組, 『彭德懷自述』, 北京: 人民出版社, 1981;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 (北京: 解放軍文藝出版社, 1991).

4) 외무부 역, 『한국전쟁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비간행 책자, I·II·III·IV, 199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3·4권, 군사편찬연구소, 2001.

5) 柴成文·趙勇田 著, 윤영무 역,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板門店』 談判』, 한백사, 1991; 김경일 저, 홍면기 역,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논형, 2005; 박두복 편,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2001; 한국전쟁연구회 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백산서당, 2000; 세르게이 곤자로프·존 루이스·쉐리타이 저, 성균관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반 역, 『흔들리는 동맹: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일조각, 2011; 선즈화(沈志華) 저, 최만원 역, 『마오쩌둥·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2010; 서상문, 『毛澤東과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주지안통

여건 속에서, 왜 한국전에 개입했으며, 어떠한 상태에서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노력했다.

## 2. 전쟁종결전략의 이론적 틀

### 1) 전쟁종결전략의 개념

“전쟁종결전략”이란 용어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이는 전쟁종결에 대한 군사적 교리가 정립되지 않았고 군(軍) 교육기관이나 학계에서도 아직 연구가 미흡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분야는 전쟁지도를 연구하는 일부 연구자들이 전쟁목적이 달성되면 전쟁을 종료해야 하고, 전쟁이 가져오는 피해, 전쟁에 대한 국민적 의지 세계여론의 압박 등을 고려하여 종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

(朱建榮),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역사넷, 2005; 지안 첸, 「중국의 한국전 개입과 공산블럭의 협력」, 『6·25전쟁과 한반도 평화』,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 2000; 오규열, 「중공군의 상감령전투에 대한 재평가」, 『軍史』 제46호, 2002. 박두복,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원인」,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2001; 양쿠이송(楊奎松),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국방부 정훈국, 『韓國戰亂 1年誌』, 1951; 국방부 정훈국, 『韓國戰亂 2年誌』, 1952; 국방부 정훈국, 『韓國戰亂 3年誌』, 19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9권, 2004-2012. 박두복 편,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2001;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집문당, 200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1·2권, 군사편찬연구소, 2001·2002;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0);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William W.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Zhang Shungu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University of Kansas Press, 1995).

또 정전협상과 휴전에 대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협상전략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의 전쟁종결전략은 새로운 차원의 개념이다. 간단히 표현하면 전쟁을 개시하여 “어떤 상태(end state)”가 달성되면 전쟁을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끝내야겠다는 전쟁 계획단계부터 수립되어야 할 ‘국가범주의 포괄적인 전략’을 일컫는다. 이는 전쟁과정에서부터 전쟁종결 시까지 변화되어지는 전략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럼으로 전쟁종결전략은 군사전략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더 상위수준인 국가전략 차원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전쟁은 국가 또는 정치적 집단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면 전쟁은 종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쟁종결은 최초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종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는 전쟁종결이 정치적 목적의 확대 또는 축소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여기에는 군사적 상황을 포함한 국내적·국제적 요인을 비롯하여 여러 요인들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종결에 대해서 중국의 병법가인 손자(孫子)는 “전쟁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반드시 속전속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전쟁에 수반되는 ‘파괴’의 속성으로 인해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커지는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전쟁에 참가한 프로이센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과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전쟁의 목적·희생·손실의 상관관계를 보고 전쟁종결의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영국의 군사전략가 리델하트도 “전쟁의 목적은 보다 더 나은 평화를 달성하는 것(The Object of war is to better peace).”이라고 말하면서 전쟁전의 상태보다 전쟁이후가 더 좋아져야 한다는 점에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up>6)</sup>

6) 리델하트(Liddell Hart) 저, 주은식 역, 『전략론』, 책세상, 1999, 455~456쪽.

전쟁은 종결전략에 의해 전쟁이 종결되고 군사행동을 포함하여 모든 적 대행위가 종식되며 새로운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쟁종결전략은 목적(object) 및 목표(ends), 수단(means), 방법(ways)을 중심으로 상호 균형을 유지한 가운데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목적은 전쟁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수준에서 요구되는 국가이익이나 국가목표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영토점령·보존·자원 확보·위협제거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목표는 전쟁목적 달성을 위해 전쟁을 통해 성취하려는 과업으로써 적의 군사적 격멸 및 확보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목적이 주관적이고 내면적으로 표현되는 반면 목표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이들이 일치할 수도 있다. 수단(means)은 목표달성을 위한 군사적·외교적·경제적·심리적 능력으로 현재의 능력은 물론, 미래 동원 가능한 능력과 잠재적 능력이 포함, 그리고 동맹국 능력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방법(ways)은 목표·수단을 연결시키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억제·수세·공세 등의 군사적 행동방안을 일컫는다.

## 2) 전쟁종결전략의 변수

지금까지 전략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군사개입 전략에 치중되어 왔다. 안보전략에 대한 이론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리처드 스나이더(Richard C. Snyder)는 군사개입전략 과정에 대한 분석을 주장했다. 로즈나우(James N. Rosenau)는 전략 환경에 대한 변수를 국제체제, 국가정부 구조, 사회적 요인, 조직 또는 사회내의 그룹요인, 전략결정자의 개인요인 등으로 분류했다. 엘리슨(Graham T. Allison)은 전략결정의 모델을 언급하면서 합리적 행위자(rational actor), 조직과정(organizational process), 정부정치(governmental politics) 모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sup>7)</sup> 퍼트남(Robert Putnam)은 국내외 환경변수들이 언제·어떻게 상호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7) Graham T. Allison,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분석하고, 대외전략의 결정력은 국제 환경요인과 국내 정치적 요인을 모두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8)</sup>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군사개입 전략과정에 대한 연구이지만 전쟁종결전략 또한 국가목표를 구현한다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연관시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전쟁은 전쟁당사국은 물론 참전국의 이해관계와 국가이익이 얽혀있는 복잡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전쟁종결 역시 국내적 여건은 물론 참전국 각자의 국가적 이익을 추구함에 따라 전쟁종결전략을 결정하는데 여러 변수들이 작용한다. 이러한 국제적·국내적 요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는 세력균형과 국가이익이 국제체제의 성격과 국가의 대외전략을 움직이는 요소라고 주장하였고, 윌리엄 월리스(William Wallgce)와 존 페럴(John C. Farrell)은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모두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루이스 코저(Lewis A Coser)는 “전쟁은 승자에 의해 압력이 가해지고 평화는 패배자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다.<sup>9)</sup> 이것은 잠재적 패자는 기회 있을 때 전쟁을 포기하고 협상을 제시할 틈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종학 교수는 전쟁을 종결하는 시점에 대하여 ①전쟁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②적의 저항능력이 없을 때, ③국민의 과도한 피로와 염전사향(厭戰思想)이 만연되었을 때, ④경제적 파탄을 초래하여 국민생활이 극도로 혼란되었을 때, ⑤전쟁의 소강상태 혹은 일방적인 대승을 거두었을 때, ⑥국제적 이익관계가 당사국 공히 불리할 때 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쟁을 종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0)</sup>

특히 전쟁종결전략을 결정하는 변수에 대해서 케롤(Carroll)은 기존학자들이 제시한 변수들을 종합하여 9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했다.<sup>11)</sup> 첫째는

8) Robert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 The Logic of Two 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1988), pp. 427~460.

9)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 Alfred A. Knopf, 1963), Charters 15-18.

10) 이종학·배명호·최병갑·이한중 공저, 『전쟁지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1984, 23쪽.

11) Berenice A. Carroll, *How Wars End : An Analysis of Peace Research*, Vol. 6, No. 4(1969), pp. 313~314.

전쟁의 목표로서 목표가 달성되면 당연히 전쟁이 종결될 것임으로 달성 가능한 제한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토마스 웨링은 “제한 전쟁은 제한된 목표가 필요하고 전쟁의 제한은 전쟁당사국 상호간의 인식과 동의 혹은 의견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강대국의 전쟁목표가 제한적일수록 전쟁종결은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군사적 상황으로 지금까지의 군사적 상황과 예측되는 미래의 상황, 주요전투의 승리 또는 패배, 영토의 획득과 상실, 전술과 전략의 변화 등을 포함한 군사적 상황이다. 세 번째는 정신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것과 훈련과 전쟁준비를 포함한 사기나 전쟁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라고 말하고 있다. 네 번째는 전쟁비용으로 전쟁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구의 손실, 재산의 파괴와 영토의 손실에 관한 것이다. 다섯 번째는 전쟁수행국의 파괴에 대한 취약성 정도를 변수로 분류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군사적, 경제적, 잠재능력으로서 인구수나 경제적 자원, 그리고 동맹국이나 우호국의 잠재적 지지를 말한다. 일곱 번째는 민족 또는 정치적 방해 존재여부나 전쟁정책을 통제하는 개인이나 정부의 안정성이다. 여덟 번째는 동맹의 참여여부나 제3자의 개입여부에 관한 외부적 상황이다. 아홉 번째는 평화협정으로 협상에 의해 목표가 달성되면 전쟁은 지속할 필요가 없어지고 전쟁은 종결된다는 것이다.<sup>12)</sup>

위와 같은 기존의 학자들이 제시한 전쟁을 종결짓는 변수는 국내적 변수와 국제적 변수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적 변수는 전쟁의 목적과 목표, 군사적 상황, 전쟁비용과 전쟁지속능력을 포함한 경제력, 전쟁지도 능력과 국민적 지지로 국제적 변수는 동맹관계의 존재와 참여여부, 제3자의 개입여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전쟁종결에 대한 변수는 전쟁의 형태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6·25전쟁의 경우와 같이 냉전체제에서 국제전이면서 제한전일 경우에는 국내적 요인보다 국제적 요인이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12) 이종학·배명호·최병갑·이한중 공저, 앞의 책, 23쪽.

### 3. 중국의 6·25전쟁 종결전략 결정요인

#### 1) 국내적 요인

##### (1) 안보적 요인

중국에게 있어 국가안보의 유지는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고 종결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요인이었다. 중국은 전쟁초기 승승장구하던 북한에 기대감이 컸지만 전쟁발발직후 신속히 군사개입을 결정한 미국의 조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타이완 해협에 미 제7함대를 파견한 조치에 대해 안보적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미국의 반격으로 38도선을 넘어 북한을 점령할 경우 세계 최강의 미국과 대치하게 됨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동북지역에 대한 침공에 이어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또한 중국지도자들은 불과 몇 년 전에 일본이 한반도를 중국 침략으로 발판 삼았던 역사를 경험하였고, 가깝게는 국공내전에서 미국이 국민당 정부의 후견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이 신생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미국이 신속히 한국전에 개입하는 것은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역과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식했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 영토인 타이완에 파병함으로써 6·25전쟁의 성격이 중국의 시각으로 볼 때 '내전에서 침략과 반침략전쟁'으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질되었으며, 타이완을 침략하고 일본·필리핀에 주둔한 군사력을 강화시켰으며,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식민지 전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태평양지역의 군사전초기지를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아시아지역의 긴장이 강화되었고, 6·25전쟁의 불씨는 주변지역으로 번져나가 중국의 안전이 극도로 위협받게 되었다고 인식했다.<sup>13)</sup>

13) 중국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I, 67쪽.

이처럼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로 보고 있다. 과거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한 다음 만주를 침략하고, 이어서 중국을 침략한 역사를 미국이 답습하고 있다고 그들은 판단했다. 즉,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와 순망치한적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순망치한적 인식은 중국의 전략적 핵심지역(core)을 방위하려면, 먼저 그 주변(Periphery)을 방위해야 하고, 주변지역인 동북지역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동북지역의 주변지역인 한반도 북한지역의 '김일성 공산주의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논리였다. 중국의 지정학적 안보개념에 따르면 중국이 중국 동부지역을 국가안보에 긴요한 지역으로 중시한 이유는 동북 지역이 핵심지역의 입술에 위치하고 있다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 때문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대량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각종 공업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4)</sup> 또한 동북지역 공업단지에 제공하는 최대의 전력공급원인 압록강의 수풍댐의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이다.<sup>15)</sup>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동북지역에 대한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접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완충지대 확보가 필요했다. 이 완충지대는 상대방의 지상군 공격으로부터 위협과 해·공군력으로부터 위협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위협까지를 고려해야 했다. 중국은 완충지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군사적 상황에 따라 한반도 일부 또는 전체를 고려했다.

한국전에 출병할 당시 중국의 전쟁목표를 "북한을 도와 승리를 얻는다."<sup>16)</sup>는 것이었다. 이때 '승리'의 의미는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북한의 통일 목표를 완수하고,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북한이 미국에 점령되지 않고 어느 선에서 휴전을 통한 일정지역의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7권, 군사편찬연구소, 2010, 64~71쪽.

15) 위의 책, 71쪽.

16) 뉴준(牛準), 「한국전쟁에서 중·미 양국 결정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전쟁과 중국』, 405쪽.

었다. 그러나 출병결정시 한반도 전세는 북한에 극도로 위험한 상태였다. UN군이 인천에 상륙한 후 조선인민군은 일방적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토타동은 10월 2일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에서 “우리 중국군대를 한반도에 출병하여 미국인과 전쟁을 벌이기로 결심한 이상, 첫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한반도 지역 내에서 미국 및 기타 국가의 침략군을 전멸시키고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중국군대가 한반도 지역 내에서 대대적으로 미군을 물리치지 못해 양국 군대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교착상태를 형성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공개적으로 전쟁상태로 돌입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군사작전 상황에 따라 제한된 지역만 확보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주은래도 1950년 10월 3일 중국주재 인도대사인 파니카(K. M. Pannikar)와의 대화에서 “미군이 38도선을 넘어 전쟁을 확대하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관여 할 것이다. 조선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다.<sup>17)</sup> 그러나 중국은 미군이 38선에서 진격을 멈추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중국은 최초 중공군의 북한 진입 후 평양-원산 철도 이북과 덕천-영원도로 이남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만약 적들이 평양-원산 선을 고수하면 중공군의 작전을 진행시키지 않고 장비의 보강과 훈련을 강화한 후, 공중과 지상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갖춘 다음 6개월 내에 공격문제를 재검토할 계획이었다.<sup>18)</sup> 이는 현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38도선 이북지역의 일부를 완충지대로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이때의 완충지대 확보는 전쟁종결목표라고 볼 수는 없다.

중국의 전쟁종결목표는 군사적 승리를 통해 미군을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한반도 전체를 기본으로 하되, 군사작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1·2차 전역의 성공적인 승리에 힘입은 중국은 전쟁종결목표를 군사작전에 의한 승리를 통해서 한반도 전체의 통일로 점차

17) 중국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I, 207쪽.

18)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한국전쟁과 중국』 II, 정부기록보존소, 2002, 21쪽.

확대했다. 1950년 11월 28일 모택동은 북한에 출병한 공산군 지휘관들에게 보낸 전문에서 “이번 기회는 아군이 대거 적을 섬멸해, 조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매우 좋은 시기이다.”라고 말했다.<sup>19)</sup> 이것은 전쟁의 목표가 한반도 통일에 있다는 것을 모택동이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택동의 새로운 결정에 따라 제3차 전역이 끝날 때인 1951년 1월초 통과된 중공군당위원회의 결의문에서 전쟁목표를 “1951년 1월 15일에서 3월 15일까지 휴식 후에 중공군은 중단 없이 작전을 계속 수행하여 한반도 전체를 해방할 것이다.”라고 규정했다.<sup>20)</sup> 즉, 기존의 경계선인 38선의 의미는 이미 UN군에 의해서 상실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사전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전쟁목표에 대해 군사작전 상황이 유리해 짐에 따라 설정된 목표가 아니라 최초부터 군사작전이 유리한 상황에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추구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50년 12월 22일 제3차 전역을 계획하면서 주은래는 5가지 정전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 중 첫 번째 조건이 외국군대가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리한 군사작전상황을 낙관하면서 전쟁의 종결목표를 “조선전역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상향조정했다.<sup>21)</sup> 그러나 1950년 3월 14일 제4차 전역시 군사작전의 실패로 다시 서울을 포기하고, 4월초 38도선 이북으로 물러나 방어단계로 접어들었다. 4월 22일 제5차 전역을 시도했으나, 역시 37선까지의 진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전선은 고착되었다. 이에 따라 “지구적인 교전과 평화담판을 준비해 전쟁의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전쟁이전 상태의 지역을 확보하는 제한된 목표로 수정되었고, 이는 휴전시까지 지속되었다. 즉, 중국의 6·25전쟁 종결 목표인 동북지역을 포함한 중국안보의 위협제거를 위한 한반도에서의 완충지대의 범위는 군사작전 상황을 고려하여 최초부터 한반도 전체와 일정한 어느 지역을 동시에 고려했다.

19) 위의 책, 84쪽.

20) 데이빗 쑤이 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국의 6·25전쟁 참전』, 248쪽.

21) 뉴준(牛準), 앞의 글, 422쪽.

중국의 안보위협에 관련되는 또 하나의 사안은 타이완에 개입한 미군으로부터 본토위협 제거와 타이완의 해방이었다. 신생중국은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당면과업으로 전국토를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중국공산당 제7기 3중 전회와 정치협상회의와 제1기 전국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의 임무를 첫 번째로 '타이완과 서장(西藏)에 대한 진공준비를 하여 전군을 해방시킨다.' 것으로 확정했다.<sup>22)</sup> 타이완 해방은 중국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인 동시에 조국해방이후 인민해방군의 가장 중요한 작전임무였다. 중공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타이완 해방임무를 3군이 맡고 작전계획 수립과 함께 주력부대 12개 군단 50만명의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공격 시기는 1951년 4월부터 5월까지 '육·해·공 합동상륙공격 연습훈련'을 실시한 후 제3야전군이 협력하여 해방시킨다는 것이었다.<sup>23)</sup>

그러나 6·25전쟁 발발 3일째에 미국이 제7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배치함에 따라 중국인민해방군의 타이완 해방작전은 거대한 난관에 부딪혔다. 중국은 미국의 타이완 군사개입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했다. 7월 27일 모택동 발언에 이어 28일 주은래가 성명을 발표했고,<sup>24)</sup> 29일에는 인민일보사설 및 각 당파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타이완 개입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중국은 미국이 군사적·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1949년 12월 8일 타이완으로 퇴각한 후 중국대륙에 친미정권을 세워 극동지역을 지배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좌절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이완이 중국 공산당 수준에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하는 등 미국은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인식했다.<sup>25)</sup>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은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과 타이완이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혔다. 미국은 1949년 말과 1950년 초에도 공개성명을 통해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

22) 중국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I, 9~10쪽.

23) 위의 책, 90~91쪽.

24) 심지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에 대한 평가」,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2001, 252쪽.

25) 중국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I, 40쪽.

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6·25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군사행동을 보면서 이것은 미국이 도서방어 전략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 언제든지 구실을 찾아 직접 군사개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제스처는 이후 타이완에서 군사행동을 취하기 위한 복선을 깔아 놓은 것으로 보았다. 중국이 이렇게 판단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첫째, 미국은 장제스에게 계속해서 경제원조를 하고 있다. 둘째, 타이완에 대한 정책브리핑에서 타이완을 포모사라고 불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셋째, 트루먼 성명에서 “미국은 타이완에서 특별한 권리나 특권을 획득하거나 군사기지를 건설할 뜻이 없다. 미국은 무력으로 현재의 정세를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sup>26)</sup>

또한 1950년 2월 중·소 우호동맹조약 체결 이후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1월 5일 타이완 문제에 관한 트루먼 성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맥아더는 6월 14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보낸 비망록에서, “타이완을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말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해방전쟁을 일으킨다면 신속히 개입하여 반격작전을 지휘하고, 그들에게 참패를 안겨주어 이번 전투가 세계적으로 결정적인 전투가운데 하나로 만들겠다. 나는 매일 밤 붉은 중국이 이렇게 하기를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sup>27)</sup> 이러한 것을 보고 중국은 미국이 결코 타이완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향권아래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군사상황이 발생시에는 즉각 개입하여 중국 본토까지 위협할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6·25전쟁과 관련하여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미국이 타이완을 점령하고 이를 기지로 삼아 중국을 포위하고 장차 중국대륙을 침략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26) 앞의 책, 41쪽.

27) *FRUS*, 1950, Vol. VII, Korea, pp.161~166; 위의 책, 43쪽.

중국의 입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50년 8월 초에 모택동은 후안 안페이(Huan Yanpei)에게 1950년 7월 31일 실시되었던 맥아더와 장 제스 간의 만남을 “단지 타이완에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모택동은 미국이 타이완을 발판으로 해 중국과 전쟁을 치를 것으로 믿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당시 중국이 선전으로 활용했던 바와 같이 한반도, 타이완,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세 곳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미·중간의 대규모 전쟁 확대를 위한 6·25전쟁이 아니라, 단순한 김일성의 남침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으로 본 것이었다.<sup>28)</sup> 다만, 중국이 타이완 해방전쟁에 의한 미·중 전쟁이나, 아니면 한반도에서 미·중 전쟁을 하느냐에 대한 선택에서 한반도에서의 이점을 고려하여 한반도를 선택한 것 뿐이다.

## (2) 군사적 요인

중국 또한 전쟁에 개입하면서 군사적 요인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확대 또는 축소했다. 이는 전쟁의 종결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군사적 요인은 지금까지의 전쟁결과와 현재 및 예측되는 미래에 대한 군사적 상황을 포함하는 포괄적 분야이다.

김일성에 의해 남침이 개시되었을 때 중국은 비교적 신중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때까지 중국군대의 주요 임무는 티베트에 진격하고, 타이완을 해방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한반도와 인도차이나 중에서 인도차이나를 더 중시해 1950년 봄 베트남 군대를 훈련·원조하고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고 있었다.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관심이 저조한 지역이었으며,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미·소간의 외교적 절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이 간섭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 판단했다.<sup>29)</sup> 그러나 미국이 6·25전쟁 개입과 함께 타이완 해협에 미 제7함대를 배치시키고 중립화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적극적인

28) 데이빗 쑤이 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앞의 책, 311쪽.

29) 뉴준(牛準), 앞의 글, 391쪽.

자세로 전환하면서 군사적으로 신속·기민하게 움직였다. 1950년 7월 7일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는 즉각 동북변방군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타이완 공격을 책임졌던 쑤위(栗裕)를 동북변방군사령관 겸 정치위원으로 임명했다.<sup>30)</sup> 또 8월 26일 주은래는 국방회의에서 “타이완 진격을 연기하고, 조선을 원조하고, 미국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동북지역에 대규모 군대를 집결시켜 기존 4개 군단에서 8개 군단을 더 증강시켰다. 그러나 중국이 7월부터 신속하게 한국전에 개입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력은 준비하였으나, 전반적인 군사력은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열세했다. 이는 중국 지도자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은 열세한 군사력의 보강을 소련의 군사원조에 의존하는 한편, 최초 전쟁목표와 작전계획도 이러한 군사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했다.

모택동은 1950년 10월 2일 ‘중국인민지원군 파병, 입조(入朝) 작전결정에 관해’ 스탈린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12개 사단으로 구성된 의용군을 10월 15일 한국전에 투입하기로 한 공산당의 결정을 통보하면서 탱크, 중화기, 중장비와 경화기, 수천대의 트럭 등 장비제공을 요청했고, 한국에서 중공군 작전 중에 소련의 대공지원을 약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모택동은 소련이 처음부터 중국과 반드시 협력해 행동해야 하며, 소련은 중국을 원조해야 된다고 믿었다.<sup>31)</sup>

소련도 중국이 소련의 즉각적인 공군지원 없이도 참전할 것이라는 결정을 하자, 스탈린은 56억 루블의 차관을 제공해 100개 사단을 무장할 수 있는 탄약과 장비를 구매하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또 소련은 공군지원도 최초 2~5개월 이후 가능하다고 했다. 소련은 실제로 10월 6일 심양과 상해에 주둔해 있던 소련공군 2개 사단이 귀환하자 총 231대의 비행기를 중국공군에 넘겨주었고, 10월말부터 12월초까지 소련공군 미그 15기와 19기 등 9개 전투기사단, 3개 공격사단, 1개 폭격기 사단 등 총 13개 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했다.<sup>32)</sup> 이처럼 군사력 면에서 소련에 대한 높은 의존은 낙후된

30) 앞의 글, 392쪽.

31) 위의 글, 397쪽.

32) 이완범, 『중국군의 참전이전 미·중관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I, 국방부 군사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을 달성시켰다고는 해도 전쟁지도 면에서 소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군사적 열세에 대해 또 하나의 대책은 전쟁의 목표를 제한하여 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1950년 10월 5일 “항미원조 보가위국” 정책을 결정했다. 이는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원조하여 함께 싸워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었다. 모택동은 10월 8일 동북군구와 제13병단에 하달한 전문에서 이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해방전쟁을 원조하고 미 제국주의 및 그 앞잡이들의 공격을 격퇴시키기 위해 북한 인민, 중국인민 및 동방각 국민민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기치아래 동북변방군을 중국인민지원군으로 편성하여 신속하게 북한경내로 파병하여 북한 동지들과 협력하여 침략자들과 전투를 벌여 영광의 승리를 쟁취한다.”라고 했다.<sup>33)</sup> 이때 중국의 전쟁목표는 불명확했다. 중국은 전쟁목표를 탄력적이고 모호하게 표현했다. 이는 “모양을 정하고 짚신을 삼지 않는다. 삼으면서 모양을 결정한다(草鞋沒樣邊打邊像).”는 모택동 정책결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sup>34)</sup> 이의 핵심은 군사적 상황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출병하기 전에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1950년 10월 2일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조선 경내에서 미국 및 기타국가의 침략군을 섬멸하고, 축출할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는 단순히 북한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여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35)</sup>

10월 3일 주은래가 말한 “전쟁 이전 상황으로 회귀, 즉 미군이 38도선을 넘지 않는다면 중국은 참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전쟁의 목표를 38도선 회복까지 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초기 열세한 군사적 상황을 고려한 작전목표에 대한 변화일 뿐이다. 중국의 전쟁목표는 군사적

편찬연구소, 2001, 474쪽.

33) 중국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I, 244쪽.

34) 뉴준(牛軍), 앞의 글, 474쪽.

35) 위의 글, 470쪽.

전 상황이 유리해짐에 따라 북한지역 일부의 완충지대 확보로부터 38도선 확보, 한반도 전체석권으로 그 목표를 확대하였으나, 1951년 제4차 전역 이후 군사적 상황이 불리해지자 전쟁목표를 다시 축소하여 38도선에서 협상에 의한 종결로 정했다. 이에 따른 작전계획도 최초 평양-원산 철도선 이북과 덕천-영월선 이남에서 방어지대구축 및 방어로부터 기동전에 의한 UN군 섬멸, 유인격멸 및 평양-원산선 확보, 속전속결에 의한 38도선 돌파, 대규모 UN군 섬멸을 통한 한반도 석권, 지구전에 의한 장기전략으로 전환되었다.

〈표-1〉 중국군의 군사상황과 전쟁목표/전략의 변화

시 기	군사적 상황	전쟁 목표	작전목표/전략
개 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병준비</li> <li>군사적 열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8도선 이북에서</li> <li>완충지대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양-원산이북,</li> <li>덕천-영월이남에서 방어</li> <li>수세적 방어전략</li> </ul>
1·2차 전역 (50.10.25~1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적 상황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8도선 회복</li> <li>목표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동전, 유인격멸전략</li> <li>공세 전략</li> </ul>
3차 전역 (50.12.31~5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상황 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 확보</li> <li>목표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세전략</li> </ul>
4차 전역 (51.1.25~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상황 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반도 전체석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세전략</li> </ul>
5차 전역 (51.4.21~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상황 불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8도선 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전, 지구전전략</li> </ul>
휴전 회담 (51.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상황 불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8도선 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전, 지구전전략</li> </ul>

전쟁종결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군사적 요인은 중공군의 현대화이다. 중국이 군의 현대화를 전쟁목적의 하나로 설정한 것은 전쟁개입시부터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신생 중국의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1946년 중반부터 형성된 미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은 중국내전을 통해 심화되었으며, 내전말기부터 미국의 개입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sup>36)</sup>

36) 박창희, 『현대중국 전략의 기원』, 플래닛미디어, 2011, 174쪽.

그러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의 군사상황은 좋지 않았다. 중공군의 병력은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었고 동원 가능한 상태였으나, 장비는 매우 낙후되고 열악한 수준이었다. 전쟁경험 역시 장기간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의 기간을 거쳤으나 정규전 보다는 비정규전에 가까운 경험이었다. 따라서 현대화된 장비와 현대전술로 무장된 미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현대화와 현대전술의 습득이 요구되었다. 모택동은 이러한 문제를 소련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했다. 1949년 6월 30일 모택동은 '인민민주주의 전쟁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라디오 연설을 통해 '소련 일변도'의 외교 정책노선을 발표했다.<sup>37)</sup> 이어서 1950년 2월 22일 모택동과 스탈린은 몰로트론, 말렌코프, 미코얀, 비신스키, 로신, 저우라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동맹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의 체결로 모택동은 인민해방군을 현대화할 수 있는 군사적 지원을 제공받게 되었다. 조약체결 당일 소련으로부터 586대의 항공기 구매와 2개 항공사단이 이양되었고, 인민해방군의 정규화를 위하여 대규모 군사 고문단과 해·공군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sup>38)</sup>

중국이 한반도 군사개입을 결정하던 1950년 10월 스탈린은 자신을 예방한 주은래에게 “우리가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고 중국이 일정한 군사력을 투입할 것을 우리는 생각했다. 중국 육군과 공군을 재무장시키는 것과 많은 돈과 시간이 드는 해군력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다...이러한 계획을 전쟁 중에 수행하는 것이 평화시기보다 더 빠르고 훌륭하며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스탈린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중국이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한다면, 기꺼이 더 빠르게 더 대규모로 그리고 더욱 양질의 무기로 중국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도와주려 했다. 모택동도 자신이 UN군에 대항하여 한반도에 개입하면 스탈린이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1940년대 말 중국 동북지역에서 소련군이 일본 관동군의 무기를 중공군 군대로 이양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한 초기단계에서 방어적인 작전을 취하다가

37) 앞의 책, 179쪽.

38) 위의 책, 191쪽.

소련무기의 도착시기를 고려하여 반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1951년 7월 10일 최초 휴전회담 이후에 장기전을 추구한 중국의 전략은 지속적인 소련의 군사원조를 통한 군의 현대화와 전쟁경험을 기초로 수립되었다. 이에 대해 소련전문가인 웨더스비(Katheryn Weathersby)는 소련의 공문서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웨더스비는 “무기와 장비지원에 대한 중국의 요구는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 스탈린과 모택동간의 서신내용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sup>39)</sup>”고 했다. 특히 1951년 이후 모택동은 전쟁이 끝나면 스탈린의 무기지원이 줄어들지 모른다고 걱정했기 때문에 스탈린이 깜짝 놀랄 정도로 대량의 무기지원을 요청했다. 1950년대 중반까지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100개 사단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소련이 중국에 제공한 차관의 61.5%가 군사차관이었다.

이에 대해 1990년 초에 주즈지앙(Zhu Zhijiang)은 항미원조 전쟁이 “우리군의 현대화에 기적적인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지적하면서, “1950년과 1951년 우리군은 12개 공군사단분의 장비와 36개의 어뢰정을 소련으로부터 받았다. 1951년과 1954년에 우리군은 더 나아가 60개 보병사단의 무기와 36개 경보병사단의 경무기를 받았다. 소련을 모델로 한 우리군의 군수산업은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기초적인 물질적 기반을 이룩했다.”고 했다.<sup>40)</sup>

특히 휴전회담 기간에 중국이 추구한 장기전 전략은 군의 현대화를 위해 시간을 끌면서 소련으로부터 더 많은 군사적 원조를 얻어내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는 전쟁종결에 영향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한국전에 개입한 대가로 추구했던 중공군 현대화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9) 데이빗 쉰이 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앞의 책, 271쪽.

40) 위의 책, 273쪽.

### (3) 전쟁지속 능력(경제력)

중국이 한국전에 개입할 당시 신생중국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하였고, 군사력 또한 UN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했다. 비록 지상군의 병력 수에서는 대등한 수준이었으나, 화포와 탱크 등이 절대적으로 열세하였고, 공군은 소련으로부터 일부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UN과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다.

중국은 개입초기인 제1-3차 전역에서는 지상군작전 위주로 싸워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나, 전쟁기간의 연장과 UN군의 현대화된 무기에 의해 발생된 엄청난 피해에 대한 보급이 최대의 약점으로 작용했다.

〈표-2〉 중공군 전역별 참전규모/피해<sup>41)</sup>

구 분	1차 전역 (‘50.10.25~11.5)	2차 전역 (‘50.11.25~12.24)	3차 전역 (‘50.12.31~‘51.1.18)	4차 전역 (‘51.1.25~4.21)	5차 전역 (‘51.4.21~5.21)
참전규모	21개사단/29만명	30개사단/30만명	30개사단/30만명	21만7천명	33개사단/33만명
피 해	1만700명	3만700명	5천8백명	4만2천	

중공군은 제공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극히 제한된 수송능력은 적시적인 전투력 보충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공세를 개시한 후에 조기에 작전한계점에 도달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그 결과 최초 공격에서 성공을 거두고도 전과를 확대하고 추격을 통해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다.

중공군 제3차 공세시 리지웨이는 중공군의 공세 지속능력이 7-1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공세기간 동안 작전거리로 40-50km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공격한계점에 도달할 시기를 예측하고, 이 시기에 반격을 개시하여

41) 참전규모에 대해서는 『6·25전쟁사』 제7권과 8권을 참조하였고, 피해에 대해서는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II을 주로 참조했다.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6·25전쟁시 중공군 1개 사단의 일일보급량은 미군 사단 600-800톤에 비해 50톤 이내였기 때문에 미군에 비해 1/4수준의 보급량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sup>42)</sup> 탄약도 화포의 경우 1분당 10-20발, 경기관총은 정당 300발, 중기관총은 1,000발, 수류탄은 개인당 4발로서 중공군의 실제 공세기간은 보급측면에서 볼 때 5-7일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웠다.

모택동도 중공군의 이러한 취약점을 알고 있었으나 소련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과 과거 인민전쟁론에 근거하여 비록 무기와 장비 면에서 열세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중국이 현대무기로 무장한 UN군의 막강함과 그 자신의 약점을 실감한 것은 제4차 전역 이후였다. 두평(杜平, 팡덕회 사령부의 정치주임)은 이 전역 이후 한반도 전체를 해방시킨다는 중국의 목적이 실제 UN군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에 기초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했다.<sup>43)</sup>

1951년 2월 20일 팡덕회는 북경으로 가서 모택동에게 한반도 전장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때 그는 중공군이 한반도에서 직면하고 있는 각종 어려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고하고 한국전에서 신속히 승리할 수 없는 이유를 보고했다.<sup>44)</sup> 그때서야 지원의 열악한 실정을 알게 된 모택동은 “가능할 경우 신속한 승리를, 불가능할 경우에는 천천히 승리를 추구한다.”라는 장기전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혁명군사위원회는 새로운 지침인 “장기전을 준비하되 단기전을 추구한다.”는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전쟁은 장기전으로 전환되었다.<sup>45)</sup> 중국의 전쟁지속 능력을 전쟁의 형태는 물론 전쟁종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4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8권, 군사편찬연구소, 2011, 199쪽.

43) Du Ping, “Zai Zhiyunjun zong bu 「지원군사령부에서」”, 해방군출판사, 1989, p.186.

44) 중국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II, 457쪽.

45) 팡덕회, 『회고록』, 3~8쪽.

#### (4) 국민적 지지

중국은 항미원조 참전결정과 동시에 항미원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항미원조 운동은 중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체계를 타파하여 중국인들의 서방과의 관계차단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최대한 고조시켰다. 또 중국은 그들의 공산정권에 대한 신념과 열정,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등 국민적 지지획득에도 적극 이용했다. 이러한 항미원조 운동은 토지개혁, 반혁명 진압과 함께 3대 운동으로 추진되었다.<sup>46)</sup>

1950년 10월 26일 중공중앙은 각 중앙국 분국, 군구, 성시 당위원회에 전국시사 선전진행에 관한 지시를 발표했다. “미군이 한반도 침략을 확대하고 타이완에 직접 침범하여 우리나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 전체 인민들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승리의 자신감을 갖고 미국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각 지역에서 시사선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중공중앙은 이를 발표하면서 선전의 기본내용으로 “① 우리나라는 미군의 한반도 침략확대를 방관할 수 없다. ② 우리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에 대해 일치된 인식과 입장을 갖고 친미 반동사상과 미국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불식하고 미국에 대해 적대시(讐視), 경시(鄙視), 멸시(蔑視)를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한반도 군사적 개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통합을 이끌어내는 기본적 개념으로 항미원조와 국가안전보장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미국은 중국과 북한 양국 인민의 공동의 적이며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허약한 본질임을 명확하게 인식시켰다.<sup>47)</sup>

이어 중국은 베이징에 있던 ‘중국 세계평화 보위대위 위원’들과 미국의 타이완과 한반도 침략에 대한 중국인민 반대위원회를 통합하여 ‘중국인민 세계평화 보위 및 미국침략 반대위원회’로 개조하여 전국의 항미원조 운동을

46) 중국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I, 278쪽.

47) 위의 책, 285쪽.

이끌었다. 이 조직은 1951년 3월 중순부터 '중국인민 항미원조 총회'로 개칭되었다.

이러한 조직적인 선전활동으로 공장·광산·농촌·학교·기관 등에서 벽보·질판·보고회·좌담회 등의 여러 형식을 빌려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선전이 이루어졌다. 이 선전 교육활동에 부응하기 위해 11월 5일 「시사수첩」은 “어떻게 미국을 인식해야 하는가?”라는 선전요강이 발표되었고, 「인민일보」는 1950년 11월 6일과 16일 연이어 “왜 우리는 미국의 한반도 침략을 두고 볼 수만 없는가와 중국인민지원부대의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위대한 의의”라는 사설을 게재하는 등 문예계와 출판계도 이들 선전에 적극 참여했다.<sup>48)</sup>

이러한 ‘삼시(三視)’의 기초위에 1950년 11월 22일 “항미원조 총회”의 “항미원조 보가위국운동은 장기적인 애국운동이 되었다. 중국인민은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시사 정치교육, 국방관련 교육과 지원행동 외에 민중의 애국열정을 실제 업무로 이끌어내었다. 또 항미원조 보가위국 운동을 자신의 업무와 결합하여 이 운동을 지속시키고 공고하게 발전시키며 최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전개된 항미원조 운동은 중국 공산당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이후 만들어낸 인민전쟁의 새로운 형식이었다.

중국은 중공중앙 주도아래 항미원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국민적 지지 획득을 이끌어냈으며, 국내정치 통합과 토지개혁, 그리고 국민경제 회복을 촉진시켰다.<sup>49)</sup> 즉, 중국은 전쟁기간 내내 항미원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전쟁에 종속시키고, 일체의 활동을 전쟁승리에 뭉으로써 전쟁의 목적과 목표변화는 물론이고 전략채택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았다.

48) 앞의 책, 286쪽.

49) 위의 책, 288쪽.

## 2) 국제적 요인

### (1) 중·북 관계 : 북한 공산정권 유지와 프롤레타리아혁명 확산

#### 가) 북한 공산정권 유지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쌍방 간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에 북한은 중공군의 절대적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중국에 종속되는 관계로 변화되었다.

모택동은 1950년 5월 김일성이 스탈린의 조건부 승인 남침계획을 설명하자 “미국이 참전한다면 중국은 병력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하며 스탈린보다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표명했다. 여기서 조건부는 외국군이 한반도에 개입하면 중공군을 투입한다는 것이었다. 이때만 해도 중국은 북한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택동은 김일성과 대담시 중국은 먼저 타이완을 점령하고 난 뒤 당신들의 나라를 통일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계획이 이미 모스크바로부터 승인되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우선시 하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모택동이 지원을 약속한 배경에는 북한과의 관계보다 소련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안보적·이념적·경제적·군사적 요인에 대한 설명은 앞장에서 설명했다.

북한 또한 중국의 지원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1950년 5월 모택동과 대담시 김일성은 남침계획을 설명하지 않았다. 작전계획이 1950년 6월 중순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인천상륙작전 3일 후 주은래는 “북경은 북한군의 작전계획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sup>50)</sup> 또한 김일성은 모택동에게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는 소련의 지원만으로 남한을 석권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50) 데이빗 쉰이 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앞의 책, 78쪽.

그러나 1950년 9월 16일 UN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이어서 낙동강 전선에서의 총반격으로 전세는 크게 역전되었고 북한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9월 30일 스탈린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스탈린은 10월 1일 모택동과 주은래에게 소련 대신 중국의 개입을 요청하는 전문을 발송했다. 스탈린은 “만일 가능하다면 5-6개 사단을 38도선 근처로 보내서 북한 동지들이 중공군의 보호아래 38도선 이북에서 전투예비대를 재조직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스탈린은 어떠한 경우라도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중국이 그 역할을 대신하여 주기를 기대했다. 모택동 역시 10월 1일 김일성과 박헌영이 공동서명한 군사원조요청서를 북한 내무상인 박일우를 통해 접수하고 그동안 준비해 왔던 군사적 개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스탈린은 10월 3일 로신으로부터 중국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모택동의 의사를 전해 받고, 10월 5일 소련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북한정권이 붕괴된다하더라도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소련 또한 북한지역이 미군에 점령되더라도 미국과 직접 전쟁을 회피할 것이며 대신 중국을 참전시킨다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10월 5일에 중국의 참전을 독려하는 보다 적극적인 전문을 보냈다.

이후 중공군 참전의 조건으로 요구하였던 소련 공군지원이 보류되어 개입을 주저하였지만, 결국 중국은 10월 13일 최종적으로 개입을 결정하고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이를 통보했다. 개입 배경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제 6·25전쟁의 주체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옮겨졌으며 단순히 국내전이 아닌 국제전으로 전환되었다.

모택동의 군사개입 동기는 중국의 동북지역은 물론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반도에서 미국을 제거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으나, 과거 북한의 도움에 대한 도의적 책임 같은 공산권 국가의 형제국으로 북한과의 관계도 강조되었다.

이미 7월부터 참전준비를 해오던 중국은 1950년 9월 5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원조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여기에서

모택동은 “조선인민에 대해서 우리는 원조와 격려를 보내야 한다. 조선인민의 중국혁명에 대한 원조는 매우 큰 것이었다.”<sup>51)</sup>라고 하였고, 과거 도움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서 같은 공산국가의 형제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팡토회도 모택동이 10월 4일 개최된 정치국 회의에서 “당신들이 말한 것은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타국의 국민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저 팔짱만 끼고 이를 지켜본다는 것을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다. 즉, 모택동의 당시 논리는 같은 공산국가이면서 형제국인 북한이 한반도에 존속하는 것이 중국의 안보는 물론 이념적·도의적으로 중국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1950년 10월 5일 중국공산당 정치국이 결정한 항미원조 보가위국은 북한인민이 미국의 침략에 항거하는 것을 원조하고 중국안보를 지킨다는 공동의 요청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었다.<sup>52)</sup> 이에 따라 명칭도 중국인민해방군이 아닌 중국인민지원군(志願軍)의 이름으로 참전하여 북한을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을 갖추었다. 전쟁 중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는 것으로 이는 전략적으로 우수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중공군이 한국전에 참여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모택동은 중국과 북한 양국관계에 대해 “북한인민을 존중하고 당과 김일성동지의 지도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중국 인민지원군이 항미원조전쟁 기간 동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팡토회는 중공군 장병들에게 “우리는 북한에 들어간 후 절대 자만하지 말고, 강대국에서 파견된 구원자세로 행동하지 말고, 북한의 당과 인민정부·인민군대·대중단체 및 수많은 인민들을

51) 중국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I, 230쪽.

52) 위의 책, 246쪽.

진심으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sup>53)</sup>

이를 위해 중국은 중국인민해방군 3대 기율과 주의 8항을 제정하여 적용했다. 3대 기율과 8항 주의를 중공군대가 홍군(紅軍)시대부터 현재의 인민해방군에 이르기까지 건군의 기본노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1927년 모택동이 정강산에서 발표한 것이다. 3대 기율은 “행동은 모든 지휘에 따른다.” “빼앗은 금전은 공공의 것으로 한다.” “일반시민으로부터는 감자하나도 빼앗지 않는다.”이다. 이에 대해 8항주의를 “말씨는 온화하게, 매매는 공정하게 차용물은 반환하고, 깐 것은 변상하며, 깔고 잔 짚은 개어놓고, 문 널판지는 그 자리에 갖다놓고 포로의 소지품에 손대지 말며, 포로를 학대하지 말고 환대하라.”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다소 수정되기도 하였지만 기본정신은 시종일관 유지되었다.<sup>54)</sup>

북한도 초기에는 중국인민의 사심 없는 원조에 감사하는 각 계층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의 각 정당 및 사회단체는 1950년 12월 12일 중국 각 민주당파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한편, 중공군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환영했다. 이것은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중국이 참전하게 되었으나 표면적으로는 상호 협력적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과 북한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이는 지원받는 국가와 지원하는 국가 간에 구조에서 형성되는 근본적인 현상으로 지원을 받은 북한의 위상은 취약할 수밖에 없어 중국과 동등한 입장을 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중국이 표면적으로 지원군의 입장에서, 또 과거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에서,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 공산혁명의 동반자로서 함께 전쟁을 수행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전쟁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었다.

1950년 12월 7일 팽덕회와 김일성이 북한에서 회담을 하여 중조연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하여 12월 상순에 정식으로 발족함으로써 명실공이 전쟁

53) 앞의 책, 301~302쪽.

54) 국방군사연구소, 『중공군사 사상사』, 283쪽.

지도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sup>55)</sup> 중조연합사령부 설치 전문에 따라 연합지휘사령원겸 정치위원에 중국지원군사령관 팽덕회를, 북한의 박일우를 부사령원 겸 부정치위원으로 하여 모든 작전의 범위와 활동에 대한 지휘는 물론 교통, 수송, 식량조달, 인적/물적 동원 등의 업무를 연합지휘부에서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전쟁지도를 팽덕회사령원을 통한 중국측에서 주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이는 결국 북한군이 중국의 통제를 받는 것이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작전의 종속은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과 북한의 불균등한 관계에서 오는 마찰은 전쟁기간 계속 노출되었다. 제3차 전역 이후 북한은 신속한 남쪽으로 전선확대를 요구하였으나, 중국은 그들의 상황판단과 계획에 의해 전쟁을 수행했다. 특히 1951년 이후 휴전협상 기간의 장기화에 대하여 북한은 협상을 통한 조기 휴전을 요구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묵살했다.

이처럼 북한은 중공군 개입 이후 전쟁의 주체가 아닌 것과 같이 휴전회담의 주체도 아니었다. 휴전협상에서 김일성의 지도력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주로 협상내용은 소련의 지시에 의해 중국이 결정했다. 중국은 협상의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한 장기전 전략을 내세웠지만, 소련으로부터 원조에 의한 군대의 현대화와 현대전 경험이라는 전쟁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또한 대규모의 중국군의 북한 주둔에는 북한의 국내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군에 의한 북한의 지방 당, 기관에 대한 군사 활동 등 '준행정권 발동'은 북한에 대한 내부간섭으로 북한으로서는 매우 불쾌한 부분이 아닐 수 없었다.<sup>56)</sup>

결국 중국의 전쟁종결전략에 있어 북중 관계는 초기에 표면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했다고 하나, 전쟁종결시까지 지원과 지원을 받는 구조적

55) 중국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II, 259쪽.

56) 서주석, 「한국전쟁을 전후한 한반도의 국제관계」,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2001, 134쪽.

관계에서 오는 종속적 위치를 북한은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중북 관계가 중국의 전쟁종결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프롤레타리아혁명 확산

신생중국의 이념적 기초는 공산주의였다. 더욱이 모택동은 중국이 공산 혁명에 성공하자 아시아에서 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으로 공산주의가 확산 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국가내부의 모든 혁명역량은 반드시 단결해야 하고, 모든 국가의 혁명역량도 반드시 단결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소련을 위주로 하는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7)</sup>

이러한 모택동의 주장은 신생중국 내부의 이념적 통일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책임과 의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신생중국은 초기 정치적 통합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것은 토지개혁 정책에 대한 저항에 부딪히고 경제와 생활에 대한 곤궁으로 공산당의 통치에 대한 환멸과 불만이 전 대륙에 만연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저항과 불만현상을 제거하고 억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경하고 격렬한 정책적 조치가 요구되었다.

또한 중국인들의 소련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심각했다. 소련에 대한 배타적 감정은 러시아의 침략과 영토 잠식에서 나타난 뿌리 깊은 역사적 요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을 양인(洋人)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58)</sup> 따라서 공산주의 정권을 유지해야 할 중국에서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대소 일변도 정책의 선언과 철저한 실현이야말로 중국에서 공산주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열쇠로 간주하게 되었다. 중국은 소련에 대한 불만을 제거하고 전통적인 소련에 대한 배타적 관념을 파괴시키기 위해 온건한 노선에서 격렬한 민중운동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6·25전쟁이라는 외환(外患)은 이러한 대중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 격화

57) 모택동, 『모택동 선집』 제4권, 북경인민출판사, 1970, 1250쪽.

58) 박두복, 앞의 글, 160~161쪽.

시키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즉, 항미원조 운동과 보가위국 운동은 중국이 서방과 일체의 관계를 차단하는 주요 방법임과 동시에 공산주의 통합과 중공 정권에 대한 신념, 열정,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필요한 좋은 기회였다.<sup>59)</sup>

또 하나는 모택동의 한반도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책임과 의무이다. 스탈린은 1949년 7월 11일 류사오치와 회담에서 중국의 혁명경험은 혁명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은 아시아 혁명을 달성해야 할 운명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코민포름의 가입국이 될 수 있는냐는 질문에 스탈린은 아시아와 유럽의 근본적 차이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그 대신 중국은 아시아 공산당 연합을 만들어 그 지도적 역할을 제안했다.<sup>60)</sup> 스탈린은 공산화될 중국의 모택동이 자신의 전략적 동반자이며 아시아 지역이 유럽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모택동의 혁명경험과 중국 공산당이 아시아에서 지도적 위치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모택동은 프롤레타리아혁명 확산을 위한 국제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 했다. 이에 대해 심지화는 “중국 공산당위원회가 1950년 8월 11일 타이완 해방계획을 1951년 이후로 미루고 한반도 군사개입으로 전환한 것은 바로 국제주의 책임과 의무였다.”고 주장한다.<sup>61)</sup>

모택동은 중국이 조선노동당 정권의 존망에 대해 수수방관하면 사회주의 진영에서 중국의 지위 및 체면이 여지없이 손상될 것을 고려하여 한국전에 개입했다. 1964년 모택동은 중국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다시 강조하였는데, “미국이 한반도를 침략했던 1950년부터 1953년 동안 우리는 조선을 도왔다…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포기했다면 실수를 범한 것이며,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했다.<sup>62)</sup> 모택동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김일성이 전쟁을 도발하였을 때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59) 위의 글, 168쪽.

60) 콘차로프·루이스·쉐리티이 저, 성균관대학교 한국현대사 연구반 역,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흔들리는 동맹』, 136~138쪽.

61) 심지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에 대한 평가」, 255쪽.

62) Mao Zedong, *Wajiao*, p. 531.

그러나 모택동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고 유지시키려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전혀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택동은 이념보다는 현실정치와 국가이익을 더 중시했다.<sup>63)</sup> 중국의 군사개입이 자국의 안보차원에서 북한을 구제하는 차원이었지, 북한정권의 공산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중국의 전쟁 종결 목표로서 한반도에 친중 북한정권 유지가 포함되었으나,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통일은 아니었다.

## (2) 중·소 관계 : 동맹 강화와 경제적·군사적 지원 확대

중국과 소련의 동반자 및 협력적 관계는 양국이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중국은 단기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본토 공격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주변지역에서 미국과의 충돌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동북지역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중원과 중국전체의 안보에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대체로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동북지역에 강력히 미칠 때 중국전체는 성세(盛世)를 이루었고, 그렇지 못해 북방이 혼란할 경우에는 중국전체가 불안으로 연결되던가 이민족에게 침략되고 말았다. 동북지방은 중국 북방의 대문이면서 아시아 안전의 관건적 위치에 있었다.

소련 또한 최고의 위협은 미국이며 이러한 적대적 관계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아시아지역에서 동부지역이 미국의 세력범위로 들어가는 것을 경계했다. 때문에 소련은 만주지역에 우호정권이 수립되고 소련 영향이 발휘되기를 기대했다.<sup>64)</sup>

중국과 소련은 이러한 공동의 적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중국은 소련과의 동맹체결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6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7권, 81쪽.

64) 박두복, 앞의 글, 149쪽.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1949년 6월 30일 모택동은 ‘인민민주주의 전쟁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라디오연설을 통해 대소 일변도 외교정책노선을 발표했다.<sup>65)</sup> 이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에 무조건적으로 복속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세계와는 양립될 수 없는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었다.

대소 일변도는 당시 소련의 정치적 압력과 중국의 국가건설에 있어서 대소 의존성의 심화가 가져다 준 강박과 자원이 결합된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1949년 12월 16일 모택동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과 회담을 가졌다. 이때 모택동은 1945년 8월 스탈린과 장개석 간의 체결된 중·소 조약을 폐기하고, 스탈린과 모택동 간에 새로운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탈린이 처음에는 미국 및 영국과의 관계를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도 서구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조짐과 1950년 1월 미국이 타이완을 포기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중·미 관계가 개선될 것을 우려하여 중·소 동맹 체결을 결정했다.<sup>66)</sup>

이에 따라 중국과 소련은 굳건한 군사적 동맹관계를 구축했다. ‘중소우호 동맹상호 지원조약’ 제1항에는 “어느 한 측이 일본 또는 그 동맹국[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전쟁상태에 돌입할 경우, 다른 측은 군사적 지원을 비롯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명시했다. 이것은 핵무기 지원까지 포함되는 강력한 것이었다.<sup>67)</sup>

중소동맹의 체결로 중·소 양국은 서로 미국과 일본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를 얻었다고 믿었다. 이러한 관계는 중국으로 하여금 소련과 함께 미국과의 전쟁을 가능케 하였고, 실제로 중국은 6·25전쟁에 개입했다. 전쟁 중에도 중국은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지구전을 치를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은 경제회복, 군의 현대화를 소련의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다. 신생 중국 수립이후 반혁명의 진압, 국방의 공고화, 경제회복,

65) 박창희, 앞의 책, 179쪽.

66) 위의 책, 186쪽.

67) 위의 책, 189쪽.

군의 현대화 등은 중국이 당면한 가장 중대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과거 중국공산당은 제1차 국공합작의 붕괴로 국민당과 군사적 대결이 시작된 이후 소련으로부터 재정적·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기본노선 이면서 관행이었다. 중국공산당의 대장정 중 1934년 10월부터 제2차 국공합작이 실현된 1937년 초까지 모스크바의 지시를 받기 쉽고, 육로에 의한 소련장비의 지원이 수월한 몽골지역에 근접한 성(省)들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서북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런 점에서 대장정의 목표는 사실상 소련지원 이 보다 더 쉬운 지역으로 홍군의 근거를 옮기는 것이었다.<sup>68)</sup>

신생중국 역시 경제건설과 군의 현대화를 위해 소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대소 일변도 정책은 대소 의존성의 심화가 가져다 준 당연한 정책기조였다고 볼 수 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한 산업시설의 파괴와 심각한 통화팽창과 장기간의 식민지·봉건적 사회경제 체제로 인해 중국의 국민경제에서 접하는 근대공업의 비중은 10% 내외였고, 90%는 생산수준이 극히 낮은 농업과 수공업이었다. 따라서 당시 중국경제의 회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949년 12월에 NATO국가와 일본 간에 협조위원회가 설립되어 중국을 포함하는 공산국가들에 전략물자의 수출이 금지됨으로써 중국 국민경제의 회복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소련에 더욱 철저하게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1950년 중·소간에 다양한 조약과 협정이 체결되고, 이러한 협정에 따라 소련이 중국에 3억 달러의 차관과 각종설비와 농업·기계·자동차·철도물자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소련은 중국의 공사 건설을 위해 선진과학 기술자와 전문가들을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경제 회복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sup>69)</sup>

신생중국의 정책목표 중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가 중국인민해방군의 현대화와 군의 현대전 경험이었다. 쑨이는 중국의 6·25전쟁 개입이 안보적 위협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공군의 현대화와 현대전 경험에 있다고 강조했다.

68) 데이빗 쑨이 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앞의 책, 88쪽.

69) 박두복, 앞의 글, 151쪽.

모택동은 군 현대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소련이라고 인식했다. 이에 모택동은 6·25전쟁 때 중공군이 유엔군에 대항하여 병력을 한반도에 투입하면 스탈린이 충분한 지원을 해줄 것으로 확신했다. 왜냐하면 1940년대 말 중국 동북지역에서 소련군이 노획한 일본 관동군의 무기를 중공군으로 이양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sup>70)</sup> 중국자료에서는 소련 무기로 중공군을 현대화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건군 이래 모택동은 소련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지원을 받고 선진화된 경험을 배움으로써 국방의 현대화를 꾀하려 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모택동이 6·25전쟁 개입 결정을 놓고 벌인 소련과의 줄다리기는 공군지원을 포함한 무기의 지원이었다. 스탈린도 중공군이 한반도에 투입할 경우에는 중공군의 현대화를 빠른 시간에 대규모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6·25전쟁 개입초기 단계에서 중국은 방어적 자세를 취하다가 소련의 무기가 도착하면 재무장하여 반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웨더스비도 소련의 자료를 분석하고 나서, “무기와 장비의 지원을 요구한 중국의 내용이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 모택동과의 서신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모택동은 6·25전쟁이 끝나면 스탈린의 무기지원이 줄어들 수 있음을 걱정했기 때문에 1951년 6월 초 협상시기와 전쟁의 종결을 예상했던 1952년 12월에 스탈린이 놀랄 정도의 대량의 무기를 요청했다.<sup>71)</sup> 이에 따라 중국은 1950년대 중반까지 100개 사단에 달하는 무기와 장비를 획득했다. 또 소련은 이 기간 동안 중국이 전투기, 탱크, 전투함을 제작하는 군수공장을 건설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에 대해 모택동은 1954년 중반에 “함께 원조전쟁을 겪어내고 몇 년에 걸친 훈련과 강화를 통해 우리군대는 향상 되었다.”며 소련의 지원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처럼 소련에 의존한 중국의 군 현대화 추진은 중국이 한반도에서 장기적 지구전 전략을 수립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70) 데이빗 쉰이 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앞의 책, 269쪽.

71) 데이빗 쉰이 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앞의 책, 271쪽.

## (3) 중·미 관계 : 적대적 관계

6·25전쟁 당시 중국은 미국이 그들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핵심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은 중국의 내전기간 국민당정부를 지원하면서 공산당을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중국 혁명 이후에도 신중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측에서 볼 때 이것은 중국혁명을 겨냥하고, 신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중적 함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중국은 1949년 10월 7일 북한과 수교하였고, 이듬해 6·25전쟁에 개입해 미국과 직접적인 교전국이 되어 싸움으로써 최악의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 김일성의 남침에 대해 미국은 한국에 군대를 신속히 파병하는 한편, 타이완해협에도 미7함대를 파견했다. 6·25전쟁이 북한에 의해 일어나자 미국은 “북한의 공격은 소련이 발동하고 지원하고 촉구한 것이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제지할 수 없다. 이것을 그대로두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처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미국정부는 6·25전쟁 초기단계에 이 전쟁이 ‘내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6·25전쟁이 발발한 후 개최된 첫 고위급회의에서 미국은 “소련이 협정을 위반하고 한국을 점령하려 한다. 더 큰 규모의 베를린 사건의 재현이기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반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sup>72)</sup>

미국은 6·25이전부터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1949년 8월 소련의 원자탄 실험 성공, 그 해 10월 국민당이 패퇴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이듬해인 1950년 중소동맹조약의 체결이 그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냉전을 세계적 규모의 이념투쟁으로 규정하면서 국가안보회의의 정책문서인 NSC-68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제출해 놓고 있었다. 이 문서에는 “현재와 같은 권력의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떤 곳에서라도 자유주의 체제가 패배한다면 다른 모든 곳에서도 패배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국전 발발은 NSC-68 실시를

72) 뉴준(牛準), 앞의 글, 389쪽.

위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공산측은 주장하고 있다.

트루먼은 1950년 6월 27일 “한국에 대한 공격은 공산주의가 자주 국가를 점령하려는 국가전복의 정도를 넘어섰으며 미래에도 무력침공과 전쟁을 행할 것임을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로 만들었다고 단언했다.<sup>73)</sup> 미 국무장관 애치슨도 그의 회고록에서 “한국은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취할 만큼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은 아니었지만 서구의 힘과 결의의 상징으로서 핵심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이 북한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소련과 중국, 특히 소련이 북한을 지원하고 이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미국과 UN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공산권의 권력 확장 의욕을 더욱 부추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을 구상했다.<sup>74)</sup> 미국은 6·25전쟁이 소련이 사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면적인 군사개입을 감행하기로 신속히 결정하고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의 육·해·공군을 전면적으로 전쟁에 투입했고, 해군과 공군의 작전범위를 38도선 이북으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로 인해 일본의 안전이 위협하지 않도록 했다.<sup>75)</sup>

미국의 전쟁지도부는 1950년 6월 25일 저녁 회의에서 타이완 해협에 봉쇄를 승인한데 이어, 이튿날인 26일에는 인도차이나 지역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필리핀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이 제7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파견한 것은 중국의 타이완 공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즉각적인 군사적 개입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그 당시 중국은 미국의 위협에 대비해 중소동맹조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애치슨도 한반도와 타이완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시킨 상태였다.

따라서 중국은 타이완 해방을 위해 진격해도 미국이 군사개입을 하지 않을

73) 콘차로프·루이스·쉐리타이 저, 성균관대학교 한국현대사 연구반 역, 앞의 책, 90-91쪽.

74) 온창일, 「중국의 한국전 개입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전략」,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2001, 332쪽.

75) 뉴준(牛準), 앞의 글, 390쪽.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제안했을 때 미국의 개입을 낮게 평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전에 대한 신속한 개입은 중국의 아시아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판단을 바꾸어 놓았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규탄은 주로 미군의 타이완 해협봉쇄에 집중되었다. 중국혁명은 통일전쟁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타이완 해협봉쇄는 중국혁명의 방해하는 적대행위로 인식한 것이다. 모택동에게 있어서 타이완 해방은 중국이 수행해 될 최후의 과제였다. 당시 타이완 해방은 중국인민해방군의 가장 중요한 작전임무로서 준비 작업이 한참 강화되고 있었다. 해방임무를 맡은 중공군 제3야전군은 8개 군단, 50만명을 투입하여 1951년 4월부터 5월까지 '육·해·공 합동상륙공격 연합훈련'을 실시한 후, 육·해·공군 3군이 협력하여 타이완을 해방시키려고 했다. 이때 총지휘는 쑤이에게 일임된 상태였다.<sup>76)</sup>

미국의 타이완해협에 대한 미 제7함대 파견에 대해 중국의 반응은 격렬했다. 모택동은 27일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일체의 국제협약에 관하여'를 발표했고, 주은래도 28일 성명에서 "이는 미국이 이미 정해 놓았던 계획의 일부분으로 그 목적은 타이완·한국·베트남·필리핀을 침략하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데 있다."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주은래는 미국의 아시아 침략행위의 최종 지향목표는 바로 중국대륙이라고 말했다.<sup>77)</sup>

한편 중국은 미국이 6·25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타이완해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한반도 전역이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갈 경우 미국은 타이완 점령을 기정사실화 할 것으로 보았다.<sup>78)</sup> 그러나 실제로 모택동은 미국이 타이완을 발판으로 중국과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한반도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해 중국은 "과거 일본침략자들이 세계를 정복하려면 먼저 아시아를 정복하고, 아시아를 정복하려면 먼저 중국을 정복하고, 중국을 정복하려면 먼저 만주와 몽고를 정복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와 타이완을 점령해야 한다."고 했던 말을 상기

76) 중국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I, 90~91쪽.

77) 위의 책, 89쪽.

78) 박창희, 앞의 책, 248쪽.

했다. 모택동은 1950년 6월 29일 인민일보를 통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행동은 선진포고'로 간주했다.<sup>79)</sup> 즉,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한국, 타이완, 베트남을 들였고, 그들의 최종목표는 바로 중국대륙이라고 인식했다.

미국이 최초 한반도에 군사 개입시에 발표한 목표는 38도선 회복이었다. 즉, 6월 25일 이전상태로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목표설정에는 주로 소련과의 전면적 충돌로 확대되지 않을까, 또 소련이 기타지역, 특히 유럽에서 불시에 반격하지 않을까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소련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소련에 자극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미국은 중국의 동향에 대해서도 주목하면서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동북지역에 대한 공군정찰을 제한했고, 국민당 군대가 참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1950년 7월 하순 이후 6·25전쟁의 정세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자 미국무부에서는 38도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미 국방부에서는 한반도 전역을 제어하는 것은 전략적 의미가 매우 크므로 미국은 38도선을 넘어야 하며 참전목표를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거나 40도선과 39도선간의 평양을 포함한 주요도시와 교통중심지를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80)</sup> 1950년 9월 11일 트루먼 대통령은 NSC-81을 승인하면서 38도선 이북에서의 유엔군 작전계획을 승인했다. NSC-81에 기초한 명령서에는 군사행동의 목표를 '북한군대의 격멸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문서에는 "북한에 대한 소련이나 중공군의 대규모 개입이 없거나 개입하겠다는 어떤 발표도 없을 때, 북한지역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작전에 대한 군사적 반격의 위협이 없을 때만 38도선을 넘을 수 있다."라고 했다. 즉,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전역이지만 중·소가 직접 참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국경지대에서는 일정거리를 두고 교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sup>81)</sup>

1950년 10월 3일 새벽 주은래는 긴급히 주중인도대사 파니카를 만나

79) 곤차로프·루이스·쉐리타이 저, 성균관대학교 한국현대사 연구반 역, 앞의 책, 208쪽.

80) *FRUS, 1950*, Vol. V II, pp.449~454.

81) 위의 책, pp.646~652.

“중국은 미군이 38도선을 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 내용을 인도를 통해 미국에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지도자들의 결심과 의지를 믿지 않으면서 이를 단순히 공갈이나 위협정도로 간주하고, 10월 9일 38도선을 넘어 북진했다. 이에 중국은 1950년 10월 5일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정책을 결정하고 10월 19일부터 압록강을 건너 한국전에 참여하여 미국을 상대로 싸우게 됨으로써 전쟁의 주체국(主體國)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때 중국의 참전목표는 38도선 이북에서 북한정권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미군이 38도선을 넘어 북진하지 않고 멈추었다면 중국은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UN군의 38도선 돌파가 중국에 개입할 명분을 준 것은 사실이다. 주은래도 10월 3일 파니카 주중 인도대사를 통해 이를 경고한 바 있고, 중국 또한 이를 참전에 대한 명분 쌓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전 발발 초기부터 동북변방군의 준비 등 한반도에의 군사력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이를 비밀리에 진행시켰다. 또한 중국은 미군의 38도선 돌파에 대한 외교적 제스처만 취했을 뿐 이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sup>82)</sup> 중국은 UN군이 38도선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머물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UN군이 38도선을 넘지 않았던 1950년 9월 29일 모택동에게 보내는 주은래의 보고에서는 “UN군이 반드시 38도선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최근에 입수한 정보와 니지룽(Ni Zhiling, 주북한 중국대사)의 전문에 의하면 “미 제국주의자들은 38도선을 넘어 북쪽으로 진격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950년 8월말 중공중앙에 제출된 NCFDA 지휘부의 보고서에는 “UN군이 38도선을 넘는 것이 중국에 정치적 이익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유리할 것으로

82) 데이빗 쉰이 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앞의 책, 184쪽.

보고 있었고, 개입 이후 중국의 전쟁목표를 남한까지 확대한 것은 미군의 38도선 돌파가 중국개입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 당시 모택동은 국제사회에서 침략자라는 낙인을 받지 않는 가운데 참전을 위한 명분 찾기에 고심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택동은 이러한 명분을 미군의 38도선 돌파로 보고 미국이 이를 제공해 주기를 은근히 바랬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UN군의 38도선 돌파여부는 중국이 이미 내린 군사개입 결정의 실행에 핵심적 변수였던 것이다.

이후 중국과 미국은 휴전시까지 전선과 휴전회담장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쌍방은 군사적 상황이 유리하면 전쟁의 목표를 확대하였고, 불리하면 협상을 이용하여 시간을 끌면서 전투력을 보강했다. 1951년 7월 이후 양측 모두 군사작전에 의한 완전한 전쟁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휴전협상에 의한 전쟁종결을 모색했다.

그러나 쌍방 간의 극심한 적대감과 이념적 대립으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중립국 감시기구 구성, 포로송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장 못지않게 치열한 전투가 협상테이블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양측은 협상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전쟁을 종결시키려는 휴전협상이 더 치열한 전투를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여기에는 6·25전쟁 개시부터 종전까지 쌍방 간의 정치적·군사적 오판이 연속적으로 작용했다. 6·25전쟁 이전 미국은 북한의 남침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고, 북한과 소련 및 중공은 김일성이 남침공격을 제안할 때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미국은 38도선을 돌파할 때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한 것 등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쌍방 간에 직접적인 외교관계가 없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소련·중국은 모두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군사대결을 피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강대국들 간의 직접적인 협상 대신에 UN·영국·인도 등을 통한 간접적인 외교경로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성

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sup>83)</sup> 왜냐하면 공산군측은 UN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인식하였고, 중국은 UN에 가입되지도 않았고, 주중 인도대사 파니카는 서방세계에서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미국의 대중국 외교역할을 담당했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해 한국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미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중국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영국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동남아시아로 한반도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꺼려했고, 중국을 포함한 공산국가와의 무역이 침해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정부의 공산권에 대한 공격적 또는 호전적인 태도를 좋게 보지 않았다.<sup>84)</sup>

영국의 한국에서 최대목표는 협상을 통한 종전이었다. 이를 위해 영국정부는 1950년 7월 6일 주소영국대사 데이비드 켈리(David Kelly)에게 소련 부외상 안드레이 그로미코(Andrey Gromyko)를 만나 소련과 중국이 김일성에게 압력을 넣어 북한군대를 38도선 이북으로 철수시키고,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 인정과 서방세계의 중국 정부를 승인하고 유엔에 가입시키는 것을 포함한 평화적 해결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이러한 미·영간에 갈등관계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미국의 대소·대중 외교의 간접적 창구로 이용되었다.

6·25전쟁사의 중국전문가인 후 구양징(Hu Guangzheng)에 의하면 “중국이 정치적으로만 강경할 뿐 군사적으로는 약하며, 허세만 부릴 뿐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워싱턴이 지니게 만들었다.”고 했다. 애치슨도 중국은 “포커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했다.”고 말했다.<sup>85)</sup>

이렇듯 6·25전쟁 동안 미·중간의 직접적인 외교채널 대신에 제3국을 통한 외교 관계는 쌍방 간에 오판을 가져왔고, 이는 전쟁을 종결하는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83) 윌리엄 스톡 저, 김형인·김남균·조성규·김재민 공역, 『한국전쟁의 국제사』, 107쪽.

84) 박두복, 앞의 글, 172쪽.

85) *FRUS, 1950*, Vol. V II, pp.868~869.

## 4.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전쟁종결전략 변수로 작용했던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은 이들 종결전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적 요인에는 정치적 목적, 군사력, 경제력 또는 전쟁지속능력, 국민적지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정치적 목적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작전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고, 이는 전쟁의 최고지도자 모택동과 현지 지원군사령관 팡덕회 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는 결국 전쟁을 조기에 종결짓지 못하고 장기전에 이르는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둘째, 군사적 상황이 정치적 목적의 변화는 물론 전쟁의 종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중국의 한반도 전쟁에 있어서 전쟁지속 능력을 포함한 경제력은 전쟁종결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넷째, 중국은 이러한 내부의 사회적 문제를 제거하고 정치적 통합과 정권의 공고화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군사개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소련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대소 관계 및 대미 관계의 종속변수가 되었으며 전쟁의 종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중북 관계는 중소 관계, 중미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가 되었으며, 양국 간의 관계도 점차 대등한 관계에서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는 관계로 변화되었다.

둘째, 중소 관계는 이데올로기 차원보다는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는 양국의 현실적인 안보위협을 포함한 국가이익 추구에 따라 부분적으로

갈등적 관계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소련에 의존하는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었다. 특히, 소련에 의존한 중국군의 현대화 추진은 중국이 6·25전쟁에서 장기적 지구전 전략을 채택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립적 관계는 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미·중간에는 직접적인 외교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통로로 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상대방의 진위파악에 대한 어려움은 물론이고 오판·시기상실 등으로 대화에 의한 외교적 해결이 어려웠다. 이것 또한 전쟁종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중국은 한국전에 개입한 이래 군사적 상황에 따라 전쟁목표 변화와 이에 따른 전략 변화에 의해 전쟁이전 상태인 38도선에서 협상에 의해 전쟁이 종결되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종결전략은 일견(一見),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전을 통해 정치·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즉, 중국은 38도선 이북지역의 완충지대를 유지시킴으로써 안보위협을 감소시켰으며, 소련으로부터 다량의 현대식 무기를 공급받아 중공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현대전을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중국은 한국전 개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중국의 한국전 참전은 북한정권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소련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최초에는 조·중관계가 혈맹으로 표현되는 정치적·군사적 동맹 관계로 시작되었으나, 중조연합사령부 설치와 운영 등 군사적·정치적 관계는 북한이 점차 중국에 종속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했다. 이러한 북중 관계는 6·25전쟁을 지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다.

(원고투고일 : 2012. 10. 1, 심사수정일 : 2012. 11. 19, 게재확정일 : 2012. 11. 30)

주제어 : 6·25전쟁, 중국, 중공군, 미국, 전쟁종결전략, 전쟁목표, 국내적 요인, 국제적 요인, 모택동, 대만(타이완)

<ABSTRACT>

## The Analysis on the Decisive Factors of the Strategy for the Communist China to End the War during the Korean War

Choi, Buk-jin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decisive factors of the strategy to end the war for the Communist China during the Korean War(1950-1953).

The Korean War was the most difficult and potentially the most disastrous of the early Cold War period, a conflict which directly involved one of superpowers in open war with the most populous state in the world. The other superpower was only indirectly involved but there wa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it might intervene; a third world war could erupt.

The Chinese Communist Forces(CCF) had entered war in Korea in late October 1950, completely surprising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e Communist China entered the Korean war to help North Korea and to resi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Communist China had fought the UN Forces and Korean forces until 27 July 1953.

This study has tried to answer the following key questions: (1) What was the concept and the decisive factors of 'the strategy to end the war(終結戰略)' during the Korean War? (2) How did the Communist China act in the initial stage and after the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against the South Korea? (3) Why did the Communist China enter the Korean War? (4) What was war policy and objective of the Communist China during the Korean War? (5) When and Why did the Communist China try to change his war objective and war aim? (6) Why did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involve the Communist China into the Korean War? (7) What was the role of the Communist China as a wartime lead state during the

Korean War? (8) What did the Communist China obtain from the Soviet Union and the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nd after the armistice?

In seeking answers to the above questions this paper used the Communist China's documents and materials, the Soviet Unions' documents and materials, and documents and files of the Korea Government, Korean War History o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ROK, and the Memoirs of those statesman and generals who played an active part in policy-making were consulted.

In conclusion, the Communist China achieved an enforcement and moderniza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and enforced their Sino-Soviet Union alliance relations through the Korean War. The Communist China also brought change in Sino-North Korea relationship, which meant the rule of North Korea by the Communist China. Accordingly, the Communist China became one of the leading states with the America and the Soviet Union after the Korean War.

Key Words : The Korean War, the Communist China,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United States, the Strategy to end the war, War Objective, Internal factors, International factors, Mao Zedong, Formosa(Taiwan)